

성경적 위기 목회상담의 이해와 적용: 욥기서를 중심으로

김 태 두*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욥기서를 중심으로 성경적 관점의 위기상담을 이해하고 목회현장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욥기서에는 테러, 자연재해, 가족의 사망, 건강의 악화, 엄청난 재산적 손실, 부부간의 갈등, 잘못된 상담의 폐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인의 고난과 악의 문제, 고난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 등을 다루고 있기에 위기목회상담에 필요한 책이다.

연구자는 욥기서를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면에서 연구하였다. 첫째, 욥의 가족에게 닥친 재난에 대한 배경이해, 둘째,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고난에 대한 이해, 셋째,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위기상담의 효율성, 넷째, 위기 목회 상담학적인 이해와 적용이며, 이에는 1) 공감 능력의 중요성, 2) 정확한 위기 진단과 안내의 중요성, 3) 증인이요 증재자요 대속자 되신 하나님, 4)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필요성 등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본문 전체를 구조분석한 후 관련된 본문들을 주해하고, 성경적 위기목회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 후 재해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놓여 있는 신비이며, 욥과 같이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며, 인류의 증보자요 대속자로서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위대하신 상담자 하나님이시란 것이다.

주제어: 하나님의 주권, 성경적 위기 목회상담, 의인의 고난, 대속자 하나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논문 투고일: 2021년 3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21년 4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7일

*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amily Ministry/Ph.D.

I. 여는 글

이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목회상담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읍기서를 중심으로 성경적 관점의 위기상담을 이해하고 목회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¹⁾ 인류는 현재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촌 전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위기상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²⁾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그리고 위기상황들과 더불어 생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고 위기 목회상담의 관점을 이해하

1)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연구에서는 NIV, 1984 version과 2011 년판 한글개역개정 성경 그리고 넷슬 알란트 28판 신약성경과 BH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2nd ed. 구약성경을 쓸 것이다.

2) 미국 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의하면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하여 “Behavioral and Public Health,” “Economic Stress and Mental Health,” “Stress, Anxiety, and Grief” 등 14개의 topic 들 안에서 전체 134개의 학술 논문들을 무료로 개방하여 위기상담에 관한 자원(resource)을 공급하고 있다. <https://www.apa.org/pubs/highlights/covid-19-articles> (2021년 3월 23일 접속). 서울대 의학도서관 사이트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논문 무료 이용 안내를 통해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xford, Cambridge, Elsevier 등 “전 세계 출판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자료 제공 사이트”를 안내하여 COVID-19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https://medlib.snu.ac.kr/en/about_library/notice/view/1441964 (2021년 3월 23일 접속). 또한, 메디칼 업저버는 “전 세계 과학자, ‘코로나 연구논문’ 전례없이 무료로 공유”라는 기사에서 “의학논문지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와 “영국의 보건의료 저널인 The Lancet” 등도 “관련 연구논문 들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5> (2021년 3월 23일 접속).

고 목회현장과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담 사례 중 하나는 욕기서에 나타난 위기 목회상담일 것이다. 욕기서에 나타난 한 개인과 가족과 그를 둘러싼 친구들과 공동체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력과 고통의 문제는 다른 어떤 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기에 많은 세계적인 문호들은 욕기서를 중심으로 인류의 고난의 문제들을 다루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The Brother Karamazov)과 카프카의 “시험”(The Trial)이다 (Hartley, 1988: 11). 또한, 심리학자 칼 융도 “욥에게 답변함”(Answer to Job)을 써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답을 찾아보려 시도하였다 (Hartley, 1988: 11).³⁾ 이처럼 욕기서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위기 목회상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욕기서에는 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를 둘러싼 공동체가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위기를 당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욕기서에는 테러, 자연재해, 가족의 사망, 건강의 악화, 엄청난 재산적 손실, 부부간의 갈등, 잘못된 상담의 폐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리고 의인의 고난, 악의 문제, 고난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욕기서에 대한 위기목회상담학적인 이해와 적용은 현재 COVID-19 팬데믹으로 총체적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성

3) 이외에도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D. A. Carson은 욥의 고통과 고난을 “신비와 믿음”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 D. A. Carson, *How Long, O LORD?: Reflections on Suffering and Evil*,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135-57. 김영희는 “고난 속에서 부재중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김영희, “고난 속 고통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고통을 통한 인생의 의미,” **복음과 상담**, 14, 218-239.

경적인 관점에서 고난을 이해하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⁴⁾

II. 펴는 글

1. 욥의 가족에게 닥친 재난에 대한 배경이해

욥기서의 기자는 욥의 가족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욥은 우스(Uz) 땅에 살았으며,⁵⁾ “온전하고(blameless) 정직하여(upright)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fear God and shun evil)” 자 였으며 (욥 1:1, 8, 2:3), 동방에서 가장 큰 자 (the greatest man)였다 (1:3).⁶⁾ 하나님은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으며, 7남 3녀와 엄청난 재산의 축복을 주었다. 그러자 사탄은 (Accuser) 하나님을 향하여 욥의 경건한 신앙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1:9-12).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경외함과 악에서 떠나 순전한 사람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욥과 그의 가족을 큰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었다. 소와

4) COVID-19 팬데믹 재난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돕는 책들은 다음을 참고하라. John Piper, *Coronavirus and Christ* (Wheaton, IL: Crossway, 2020). 이 책은 개혁된 실천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2020년에 번역 출판되었다. John C. Lennox, *Where is God in A Coronavirus World?* (Epsom, UK: The Good Book Company, 2020). 이 책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라는 제목으로 2020년 아바서원에서 번역 출판 되었다.

5) Anderson (1976:77)은 우즈 (Uz) 땅이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이라고 보는 것이 욥기에서 전체의 배경과 맥락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말한다. 77. John E. Hartley (1988: 65-66) 는 Uz가 “Northeast of Palestine in the Hauran” 일 것이라고 말한다.

6) 2005년 판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번역하였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BHS) *gadol*은 “훌륭한 자”란 번역보다 “큰 자”로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하다.

나귀를 돌보던 욥의 종들이 까닭 없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한 사람의 메신저 외에는 전멸했으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 떼들이 모두 불타버렸으며,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으로 모든 종이 죽고 낙타를 모두 빼앗겼으며, 잔치를 벌이던 욥의 열 자녀가 있던 집에 돌풍이 불어 닥쳐 모두 죽게 되었다. 이런 끔찍한 재난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1:13-19). 그러나 욥은 엄청난 재산과 자녀들과 자신의 건강을 잃고, 심지어 그의 아내가 저주와 악담을 퍼부어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음을 볼 때 사탄의 고소는 거짓임이 판명 났다 (1:22-22, 2:7-10).⁷⁾

욕과 그의 가족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재난과 고통을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겪게 되었다. 자연재해와 테러 등이 갑자기 발생하여 모든 재산과 종들과 열 자녀를 잃어버렸다. Scott Floyd (2008: 47-48) 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욥에게 Type 2 즉 급속히 그리고 극심하게 어려운 트라우마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고 직면하며 경험하였다” 라고 분석하였다.⁸⁾ 하지만 욥은 엄청난 신앙심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In all this, Job did not sin by charging God with wrongdoing) (1:22). 이는 나중에 회복 (resilience)과 치유 (healing)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⁹⁾ 이로써 Clebsch와 Jaekle (1967: 4)이

7) Holmes와 Rahe의 “사회적 재적응 평가 척도”를 통해 보면 욥은 엄청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Clinebell (1996: 188-90).

8) Scott Floyd, *Crisis Counseling: A Guide for Pastors and Professionals*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2008), 43-44, 47-48. 여기서 Type 2 Trauma는 동시다발적인 트라우마 (multiple-blow trauma)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한 개인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트라우마를 경험” 하기도 하고, 동일한 사건의 반복이 아닌 트라우마를 동반하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서 욥은 단시간에 여러 다른 트라우마를 동반하는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9) ‘회복력’ 또는 ‘회복 탄력성’ (resilience)이란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Ivey, Ivey, & Zalaquett, 2018: 49) 또는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며 평정을 유지하고 위기와 다른 중요한 긴장되는 삶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인간의 능력이다”(Collins, 2008: 826)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장한 목회 돌봄의 중요한 네 가지 요소인 “치유 (healing), 지탱하기 (sustaining), 안내하기(guiding), 그리고 화해하기 (reconciling)”중 “지탱하기”가 옴의 확고한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극심한 위기로 옴의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 (painful sore)”가 생겨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다 (2:7-8). 이에 옴의 아내는 “그래도 [아직 당신의] 온전함 (integrity)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curse) 죽으라”며 저주를 퍼붓기에 이르렀다. Irene Pollin (1995: 120)은 주장하기를 가족 내의 “의료 위기상담 상황에서 돌봄과 지속적인 상호 지원은 중요한 요소이다. 의료 환자지원과 돌봄에 대한 가족의 능력은 서로 상충하는 요구에 대한 균형을 갖고 질병을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의료 질환 환자의 삶의 질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며, 심지어 의료환자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주장한다. Pollin의 관점에서 보면 옴은 가족 내 마지막 생존자인 아내에게서조차 또한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서 돌봄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19:13-19).¹¹⁾ 하지만 옴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복

10) Collins (2008: 828)는 개인의 경건 생활 외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하게 발전시키고 상호 간의 지지와 격려로 함께 나누고 일할 수 있는 돌보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Hiltner는 위의 네 가지 요소 중 “화해 (reconciling)를 제외시키고 세 가지 일을 목회”라고 보았다. 재인용. 오성춘, *목회상담학*, 362.

11) 옴의 아내는 옴의 “숨결” (breath)조차도 싫어했으며, 그의 형제들도 옴을 “혐오” (loathsome) 했고, 그를 원수처럼 여겼으며, 친척, 친구들, 종들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게 되었다 (19:13-19). Prime, Wade, & Browne은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분야는 재정적인 문제와 배우자의 육체적 질병 등으로, 이들은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며 이혼의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Prime, Wade, & Browne, 2020: 631-643). 또한, Dozois는 팬데믹과 같은 재난은 심한 “걱정” (anxiety)과 “우울증” (depression)을 동반하여 사회적 움츠리거나 회피, 약물복용, 알콜사용, 마약사용 등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많은 사람이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한다고 보고한다 (Dozois, 2020: 1-7).

을 받았을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며 욕의 아내를 훈계하였다 (2:6-10). 이처럼 욕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테러로 엄청난 재산적 손실과 열 자녀를 잃은 슬픔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예배하였다. 이처럼 욕의 경건한 믿음은 위기로 발생한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 (stressor)과 트라우마 (trauma)로부터 욕을 지탱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¹²⁾ 욕의 굳건한 믿음은 나중에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함으로써 해피 엔딩 (happy ending) 내러티브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욕과 비슷한 종류의 (한 가지 혹은 그 이상) 고난을 겪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약 5:11).

2.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고난에 대한 이해

욕이 당한 고난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성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사실 욕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1:1, 8, 22, 2:3,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dialogue)로부터 욕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1:6-12, 2:1-6).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욕의 고난이 발생할 수도 없었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1:12, 2:6; 마 10:29). 또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도 받으실 수도 없는 분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아래서 이루어진다.¹³⁾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하

12) 이관직, *개혁주의 목회상담학*, 개정증보판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6), 555.

13) Grudem (2000: 217, 315)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 말하길 “[전지전능하신 (Omnipotence)]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에 대해 통치하심”을 말하며, 이는 “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의미한다고 했다. 참조,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Abridged ed. edited by Edward N. Gros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2.

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했다(약 1:13). 여기서 ‘시험’ (*peirasmos*: *πειρασμός*) 혹은 ‘시험을 받는다’ (*peirazomai*: *πειράζομαι*)는 “시험 (test), 시도 (trial)” (참조. 벰전 4:12; 약 1:12; 벰전 1:6; 히 3:8) 혹은 “유혹 (temptation), 미혹 (enticement to sin)” (참조. 마 6:13; 눅 4:13; 11:4; 약 1:12 등)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이다.¹⁴⁾ 여기서 야고보서 1:12 절에 나오는 시험은 1:13 절과 같은 *πειρασμός*란 단어를 썼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인내와 연단 (*perseverance and trial*)이다. 이러한 시험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시험과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순종으로 합격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fear God*) 자란 인정을 받았고 열국의 아버지로, 자손의 번성함으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 (창 22:1-18). 하지만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12절과 같은 원어 *πειρασμός*를 쓰고 있지만, 이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과 미혹’인 것이다 (McCartney, 2009; Richardson, 1997).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14-15절에서 말하는 의미이다. 즉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욕에게 죄를 지어 파멸에 이르게 하는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Davis, 2014).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에 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에게 허용된 시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신비”이다. 더욱이 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환란이나 시험, 크나큰 재앙은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욕기 38-41장의 욕과의 대화에서 욕이 이해할 수 없는 전능자의 하시는 일에 대

14) BDAG, s.v. “*πειρασμός*,” and “*πειράζομαι*.”

하여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 . . 대답해 보라”고 도전 하셨다 (38:3, 40:7). 이에 대해 욥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며 회개하였다 (42:3-6). 이런 관점에서 D. A. Carson (2006: 155)은 말하기를 “욥은 여전히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탄과 내기 (wager)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 . .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암시를 멈추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였다. Carson(2006: 155-156)은 사탄과의 내기에 대해 욥기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신비 속에 가려져 있으며 “인간 차원에서 이해한 구속과 심판은 인간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 전투 (struggle)는 때로 끔찍하기도 하다”고 했다.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영적 전투를 벌인다고보다는 그런 전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온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 엡 6:10-17). 이런 우주적 전투는, 사탄보다 상대적 약자인 욥과 그의 가족에게 임했음을 볼 때 분명해진다.

3.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위기상담의 효율성

욥의 극심한 환난과 재난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가 위로 차 욥을 방문했으나 그들은 욥을 알아보기조차 힘든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였다.¹⁵⁾ 그들은 대성통곡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잿가루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칠일 칠야를 일언반구도 없이 욥과 같이 앉아

15) NIV 성경에는 그들의 방문의 목적이 “sympathize with him and comfort him”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볼 때, 세 친구는 위기 돌봄 상담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슬픔에 공감(empathy)하며 위로를 표했다. 세 친구는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보았고 마음으로 체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12-13).¹⁶⁾ 이처럼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재난으로 인한 상실감과 두려움과 고독감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내담자 욥에게 세 친구는 탁월한 공감 능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난 후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안식과 평화가 없음을 탄식하자 (3:1-26) 그들은 드디어 입을 열어 욥의 재난과 환난에 대한 의견들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욥을 위로 하기 위한 돌봄 상담을 시도한 것이다.

세 친구의 돌봄 상담이 번갈아 세 번의 순환 (cycle)을 이루며 진행되는 어간에 욥의 반응이 짝을 이루며 지속된다 (4:1-27:23). 즉 엘리바스-욥-빌닷-욥-조발-욥의 사이클을 이루며 내러티브가 형성되는데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조발이 없고 욥이 마지막으로 세 친구에 응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6:1-27:23). 그 이후 욥의 두 번에 걸친 독백에 이어 (28:1-31:40) 엘리후의 돌봄 상담이 여섯 장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32:1-37:24). 물론 욥기서의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두 번의 중재 (intervention)와 욥의 반응과 회복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위대한 상담가 (Wonderful Counselor: 사 9:6; 11:2)이신 하나님의 중재는 욥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회복과 치유와 화해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의 위기상담과 그 효율성은 어떠했는가? 그들의 상담으로 욥은 위기상황을 극복하며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로 나갔는가? 아니면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신비에 쌓인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하려고 욥을 지속해서 정죄하

16) 여기서 침묵으로 욥의 고난에 동참한 상담 기법은 “때때로 상담자가 조력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일[로] 내담자를 침묵 속에서 지지하는 것이다. . . . 때때로 최선의 지지는 단순히 아무 말 없이 내담자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일 수 있다.” (Ivey, Ivey, & Zalaquett, 2018: 77). (참조, Anderson, 1976: 96; Clines, 1989: 65; Hartley, 1988: 86).

고 판단하여 더욱더 곤경에 빠트렸는가?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지도 않고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여 아무런 효과도 없이 욥을 더욱더 분노케 하였는가? 불행하게도 욥의 세 친구의 위기상담은 실패로 끝났으며,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만 드러내려 함으로써 욥을 더욱더 분노케 하고 낙심하고 절망케 하였다 (참조, 4:7-8, 17, 5:17, 8:4, 13:1-2, 17-19, 15:12-13, 16:2, 10, 18:2-3, 19:21-22, 21:34, 22:4-10, 25:4, 26:2-3, 30:24-26, 34:35-37). 특별히 욥의 세 친구의 위기상담 문제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로 올바르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42:7-8). 이에 대한 부분은 ‘위기 목회상담학적인 이해와 적용’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¹⁷⁾

4. 위기 목회상담학적인 이해와 적용

욥의 세 친구의 위기상담은 실패로 돌아갔다.¹⁸⁾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첫 방문 때 보여 주었던 탁월한 공감 능력을 지속해서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욥의 고난과 탄식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지도 않았다. 위기상담에서 중재(intervention) 타이밍도 너무 빨랐고,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욥의 애매한 고난에 대한 이해도 없이 욥과 자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였다. 상담이 지속될수록 욥에게는 분노만이 쌓여 갔다. 마침내 욥은 세 친구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miserable comforter)이라 결론 짓게 되었다. 이처럼 욥기서에는 위기 목회상담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성경적인 자원들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17) Carson (2006: 148-150)은 엘리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는 것이 예외적이라며, 그러기에 그에 대한 평가는 사실 난해하다고 말한다.

18) 오성춘 (1997: 59-63)은 욥의 세 친구는 “실패한 상담자들”이라며 그 이유로는 “자기의 입장에서 욥을 판단”했으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상담자”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네 가지 면에서 위기 목회상담학적인 관점의 이해와 적용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1) 공감 능력의 중요성, (2) 정확한 위기 진단과 안내의 중요성, (3) 증인이요 중재자요 대속자 되신 하나님 (4)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필요성 등이 있다.

1) 공감 능력의 중요성

위기 목회상담에서 공감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은 내담자를 지지해주며 (supporting), 지탱해주는 (sustaining) 힘을 가져다준다. 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전감을 느끼게 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를 쉽게 풀어 갈 수 있도록 신뢰 관계 (rapport)를 형성해준다.¹⁹⁾ Gary Collins (2008: 35)는 “공감은 내담자와 ‘함께 느낄 수’ 있으며, 내담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하였다. Tracy A. Prout와 Melanie J. Wadkins (2014: 121)는 “공감은 타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왜냐하면 상담자가 상징적으로 내담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한, 공감은 “내담자가 하는 말의 내용이나 내담자가 분명하게 혹은 모호하게 표현한 감정에 대한 반추를 포함하며, 내담자들의 상담 여정에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다”고 했다.

욥의 세 친구의 경우, 첫 만남에서 욥의 고통에 동참하여 7일 낮 밤을 아무 말도 꺼내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탁월한 공감 능력을 발휘하였다 (2:13; 참조, 롬 12:15-16). 하지만 욥이 그의 생일을

19) 오성춘 (1997: 385)은 말하기를 “시워드 힐트너, 캐롤 와이즈, 웨인 오우츠, 물로 메이등도 공감적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고, 20세기 상담학이 계발한 공감적 이해 기술을 무시한 어떠한 목회상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조, Hiltner, 1976; Wise, 1956; Oates, 1974; May, 1939).

저주하며 고통스러운 말들을 쏟아 내자 (3:1-26)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인과응보’ 적이며 ‘권선징악’ 적인 반응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욕이 태어남을 저주하며 죽고자 하여도 죽음이 자기를 피해간다고 말했지만 귀담아듣지 않았다 (3:21). 욕이 두려워했던 것 즉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Anderson, 1976: 110)이 자기에게 임했다며 ‘두려움’ 을 말했는데도 (3:25; 참조, 6:4) 그들은 이 중요한 점을 간과하였다. 데만 사람 엘리바스는 “죄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법이 없다”며 간접적으로 욕의 죄가 이런 환난의 원인임을 지적하였다 (3:7).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라며 노골적으로 욕이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욕의 경건 (piety)을 비웃으며, “네 악이 크지 아니하나 네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공격하였다 (22:5). 수아 사람 빌닷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욕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며 악담을 했다. 이는 위기상담에서 신뢰감 (rapport)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지적이었다. 나아가 사람 소발 역시 욕에게 “네 손에 죄악이 (sin)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evil)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11:14)며 욕의 죄가 환난과 재앙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세 친구의 인과응보적, 권선징악적인 상담법은 욕으로 하여금 그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16:2).

욕의 세 친구의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직면’ (confrontation) 기술은 참담한 (miserable) 것이었다. 사실 직면은 “내담자들이 자신들과 실재를 좀 더 투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왜냐면 내담자들은 종종 자신들이나, 타인들이나, 세상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관계 형성 (rapport)이 잘 되어있고, 또한 내담자의 정서적, 행동적 불일치를 보여

주는 많은 증거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Sommers-Flanagan & Sommers-Flanagan, 2003: 76)을 상담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담자의 저항을 초래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내담자의 저항을 초래하는 위험”이 옴과 그의 세 친구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²⁰⁾ 옴의 세 친구의 부정적인 직면과 공감 부족으로 인해, 그들과 옴과의 긴장 관계는 계속 증폭되었으며, 신뢰감이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옴의 위기상담에서 다음 단계의 문제들—예컨대, 자살 충동, 우울증, 두려움, 자녀들을 잃은 상실감과 슬픔, 분노, 재산적 손실에 대한 충격, 악화된 건강의 문제, 불면증, 아내와의 갈등 등—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Norman Wright는 (1993: 75-99) “위기 중재를 위한 과정”의 8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각적인 중재(Immediate Intervention),” “행동 취하기,” “희망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기대감 주기,” “지원을 준비하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자존감을 세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심을 가르치기” 등이다.²¹⁾ Wright는 게리 콜린스와 유사한 “위기 중재를 위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Wright는 위기상담의 속성상 “즉각적인 중재”와 “행동 취하기”를 매우 중요시하면서 위기상담의 과정에서 맨 먼저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상담의 종류도 다양하기에 상담자는 상황에 맞게 8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도 말하고 있다. 반면에 Gary Collins는 관계 형성(rapport) 등 전형적인 상담의 기본원칙 등을 강조하는 면이 다르다. Collins는 (2007: 819-23) “정신건강에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 일차적으로 심리적인 도움을 [주

20) John Sommers-Flanagan & Rita Sommers-Flanagan, *Clinical Interviewing*, 3rd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2003), 76-77.

21) H.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What to do and say during the first 72 hours* (Ventura, CA: Regal Books, 1993), 75-99.

려는 방법들”을 9단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관계를 형성할 것,” “불안을 줄일 것,” “문제의 핵심에 초점을 맞출 것,” “자원을 평가할 것- 영적, 개인적, 대인관계의 자원, 목회적 자원 등. 다섯째, 중재를 계획할 것. 여섯째, 행동을 격려할 것- 즉 “위기 상황에서 내담자가 상황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인식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삶의 방법을 재조정하며, 현실적으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인식 속에서 편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희망을 불어넣을 것,”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 (Follow-Up),” “위탁할 것 (Referral)” 등이다. 욕의 세 친구는 이런 기본적인 상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미숙한 상담자들이었다. 이들에겐 Wright나 Collins가 제시한 이런 상담 훈련기법으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갖춰야만 했다. 단지 위로 차원의 공호와 열정만 가지고는 위기상담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2) 정확한 위기 진단과 안내의 중요성

위기 상담가는 정확한 위기 진단을 신중하게 해야만 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만약 성급하거나 미숙한 진단을 하게 되면 상담의 목표와 계획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을 더 악화시켜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욕의 세 친구는 성급하고 미숙하게 진단하고 부정적으로 직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욕의 세 친구는 상담의 과정으로서 “관계 맺기 (rapport), 탐색하기 (exploring), 계획하기 (planing), 진행하기 (progressing)” 등의 과정들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다 (Collins, 2008: 93-94). 아무리 위기상담이라 할지라도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의 과정을 충실하게 숙지하고 따라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욕의 세 친구는 위기를 맞이한 욕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데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이해와 확신을 강압적으로 욱에게 주입해 욱의 입을 다물게 하려 했으며, 욱의 태도를 변화시키려 했다. 욱은 “은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1:1) 였으므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잠 9:10)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욱의 세 친구가 욱에게 베푸는 지시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주입식 상담 기법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욱의 세 친구는 내담자의 지적 인식능력과 영적인 수준을 간과한 채 위기상담을 진행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특별히 욱의 위기상황에서 욱의 “자신과의 관계적 위치 (Location in Relationship to Self), 타인과의 관계적 위치 (Location in Relationship to Others),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 (Location in Relationship to God)” (Jones, 2006: 33-34)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욱은 열 자녀를 잃은 슬픔, 엄청난 재정적 손실, 심각한 건강의 악화 그리고 부인과의 갈등, 수면 장애 등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위급한 상담 문제는 (issue)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며,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았던 욱에게 닥친 환난과 재앙은 여태껏 자신이 견지해온 신앙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청천벽력과 같은 위기상황이었다. 그러기에 욱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욱의 세 친구는 위기상담을 진행해야만 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해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1) 욱과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

욱과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는 그의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나 있다. 욱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의 독을 마

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 (God's terror)이 나를 엄습하였다 (marshal)”고 탄식하였다 (6:4). 여기서 Hartley (1988: 132)는 욕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I-Thou’ 관계가 아니라 ‘I-It’ 관계”라고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지껏 그의 영광으로 여겨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가 욕을 짓누르는 대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욕은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고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욕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자기에게 주시면서도 자기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신다”며 왜 자신을 ‘하나님의 과녁’으로 삼아 “[자기를] 무거운 짐”이 되게 하였고, 허물 (offenses)과 죄악 (sins)을 용서해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9:10)이며, 자신의 억울한 고난에 대해 “하나님과 재판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위엄이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기를” 원하였다 (9:31-34). 욕은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자신과]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알려주시길” 간구했다. 또한, 욕은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자신을] 향하여 진노 (anger)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다” (10:17; 참조. 19:7-12)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욕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욕을 원수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이시며 (13:24), 재판에 욕을 끌어내어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었다 (14:3). 욕은 자신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는 못 미쳐,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지 않았는가 혼란스러워했다.²²⁾ 이는 다분히 욕의 세 친구의 지속적인 공

22) 한현희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분노 (anger)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라며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을 3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한현희,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복음과 상담**, 28(2), 195-222. 욕 역시 하나님을 향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 (anger)를 터트리지는 않았다고 연구자는 이해한다. 또한 “성경

격으로부터 심신과 영혼이 지친 욥의 위기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한 가닥 희망의 실마리를 놓지 않고 있었다. 즉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보자 (advocate)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 .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 하시기를 원한다”며 자신의 상황을 변호해줄 증보자에 대한 소망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16:19-21). 자신을 변호해주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증보자를 갈망하며 욥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3:10). 욥은 환난과 세 친구와 고통스러운 대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희망이심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위기상담에서 욥과 같이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면 “회복 탄력성” (resilience)과 치유에 대한 바람은 희망적이다.

(2) 욥과 자신과의 관계적 위치

욥이 자신과 가족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위기상담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담자의 자신과의 관계적 위치는 위기상담에서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서 회복의 과정으로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위기에 처한 내담자들은 두려움과 걱정, 외로움, 수면 장애, 분노, 불안, 고립, 낙심과 절망, 타인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 등의 증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런 증세들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병리 현상이며 위기상황에 처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상담자는

은 분노를 죄로 다루기보단 건설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분노를 죄라고 한다” (김태두, 2006). 많은 학자들 역시 욥은 하나님께 분노 (anger) 하였다기보다는 불평 (complaint) 하였다고 이해한다. 참조. (McCartney, 2009: 243; Nystrom, 1997: 288; Richardson, 1997: 225). 분노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는 오윤선의 “청소년 분노조절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을 참조하라. 오윤선, 복음과 상담. 14, 9-34.

노력해야 한다. 이 위기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들에게 위기 증상들이 더욱 악화되거나 상담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Everstine & Everstine, 2006).²³⁾ 이런 점에서 볼 때 안타깝게도 욕의 세 친구는 욕의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재난을 주는 위로자” (16:2)였다.

그렇다면 욕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가? 욕기 3장을 보면 욕은 세 친구와 7일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한다 (3:3-13). 욕은 자신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자신을 피해간다고 탄식한다 (3:21). 재난을 만나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 (7:3) 욕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즉 두려움 (3:4; 6:4), 괴로움과 불행 (6:2-3), 친구들과 형제들로부터 소외됨 (6:14-15, 27), 수면 장애 (7:3-4), 억울한 감정 (13:18-24) 등으로 심신이 매우 쇠약해져 “희망 없이 보낸다” (7:6). 전반적으로 욕은 하나님과 세 친구에게 둘러싸여 고독감을 느끼며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족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에 탁월한 돌봄 사역을 했던 상담자 욕에게²⁴⁾ 닥친 재난과 환난은 “역전이” (counter-transference)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 고통을 당하며 회한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상담자로서 욕의 세 친구는 애매하게 죄를 지적하여 죄책감을 심어주기보다는, 욕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신비스러운 경륜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3) 욕과 세 친구 및 타인들과의 관계적 위치

욕의 세 친구는 재난을 겪은 지 몇 달이 안 되어 (7:3) 아직도 “애통과

23) Diana S. Everstine & Louis Everstine, *Strategic Interventions for People in Crisis, Trauma, and Disaster*, rev. ed. (New York: Routledge, 2006), 182-183.

24) 참조. 욕 4:3-5; 29:21-25. 이관직은 “상담자였던 욕은 내담자들을 교훈하며 (instructing) 지지하며 (strengthening) 붙들어 주었다 (supporting)”라고 해석한다. 이관직, **성경 인물과 심리분석**, 개정증보판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9), 553-554.

정”(grief process)에 있는 욥에게 미숙하고 조급하고 부정적인 위기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고착된 관계를 유발하였다.²⁵⁾ 이렇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관계 형성이 안 되어 고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상담의 효율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위기상담자로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욥의 결론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6:14, 21-27), 욥을 공격하며 (10:17; 19:3), 욥을 열등하게 여기며 (12:3), 경청 기술이 부족하며 (13:17),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며 (16:2),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며 (19:2) 긍휼히 없는 위로자들이며 (19:21), 내담자를 돕지 아니하는 자들 (26:2-3)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른 상담자였던 엘리후 역시, 상담의 첫 시작을 “화”를 내면서 시작한 점 (32:2, 5),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라고 한 점 (34:36), 욥이 “죄에 반역을 더했다”라고 한 점 (34:37), “악인에게 받을 벌이 [욥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 (36:17)가 [욥에게] 임한 결과 욥이 고난을 겪는다고 한 점 등은 위기상담자로서 형편없는 자질을 보여 준다.²⁶⁾ 내담자인 욥이 상담자들인 세 친구에 대한 평가는 상담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커녕 욥에게 더욱더 고통을 가중하고, 낙심시키고, 절망케 해서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했다.

한편 욥의 주변에 있던 가족, 친척들, 다른 친구들과 이웃들과 관계 또한 내담자 욥의 위기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욥은 사람들에게

25) “애痛的 과정”(grief process)은 퀴블러-로스(Kubler-Ross)에 의하면 대개 다섯 단계를 거친다. “첫째, 충격감과 무감각 혹은 부인의 단계. 둘째, 분노의 단계. 셋째, 흥정의 단계. 넷째, 우울증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의 단계다.” 이관직, *성경 인물과 심리분석*, 249.

26) 물론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가 보지 못한 관점을 가져온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들(위에 예시한)이 더 많다. 욥에게 인내와 믿음을 격려하고 (36:15-16) 하나님의 공의를 비난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36:24) 한점은 긍정적인 면이다. Carson, *How Long, O LORD?*, 148-150. 오성춘은 욥의 세 친구와는 달리 엘리후의 상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성춘, *목회상담학*, 63-71.

게 “조롱거리” (12:4)가 되었으며, 모독감과 모멸감 받으며 (16:10), “백성의 속담 거리” (17:6)가 되었다고 말한다. 욥은 자신이 “폭행을 당한다고 말”해도 돕는 자가 없고 “도움을 간청”해도 돕지 않고 “정의를 없애는” 세상이 되었다고 탄식한다 (19:7). 또한, 욥의 형제들, 친척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그를 버렸다고 슬퍼한다 (19:13-16). 심지어는 욥의 아내까지도 자신이 살아 숨 쉬는 것조차도 “혐오” (loathsome) 한다고 했다 (19:17).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었고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미워하며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그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탄식한다 (19:19). 이처럼 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 모두에게서 따돌림을 받고 고독과 절망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이었으며 (시 22:1-31),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마 26:31-35),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마 27:46)과 유사한 외로움과 오해와 멸시를 천대를 받고 있었다.²⁷⁾ 그러므로 욥은 자신을 지탱해줄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욥을 지탱해주고 안내해 주어야 할 아내와 친척들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다. 욥은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정의와 불공정한 처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하늘에 계신 변호자 (advocate)를 갈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조. 9:33-35; 16:19-21; 17:3; 19:25, 26-27; 23:3-7).²⁸⁾

3) 증인이요 중재자요 대속자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부딪친 욥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

27) Åe Viberg, *Job in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0), 202-203.

28) 하늘에 계신 “변호자”는 (3) “증인이요 중재자요 대속자 되신 하나님”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과 친족은 물론 친한 친구들이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받았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그의 숨소리조차도 혐오할 정도로 욥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19:17). 옆친 데 덕친 격으로 그의 세 친구 상담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공격을 당했다. 말하자면 인간 세상에서 그에게 지지와 격려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철저히 홀로 남았다 (Viberg, 2000). 이제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욥에게 불공평해 보였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결백함을 지지해주고 고난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주시는 것 외에는 별다른 희망이 없었다. 욥과 같은 극한상황에 처한 내담자들의 위기에 대한 반응은 “불안정, 무질서와 지속적인 심각한 쇠약증세 또는 높은 수치의 각성 (arousal), 걱정이나 정서적 변화와 부동 (immobility), 극단적인 자해나 공격적인 행위들”과 “자살행위, 폭력, 약물중독, 반항적인 행위” 등을 보인다 (Collins & Collins, 2005: 108).²⁹⁾

하지만 욥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세를 극복하고 그의 순전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중재해주시길 간구하였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지금 나의 증인 (witness)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 (advocate)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16:19-20) 라며 하늘에 계신 “중보자”를 갈망하였다. Anderson은 이 ‘증인’과 ‘중보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19:25의 “대속자” (The Redeemer)가 바로 그분일 것이라고 해석한다 (Anderson, 1976). Hartley 역시 하나님 자신이 욥의 증인이요 중보자가 되신다고 주장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으로 재난 가운데 있는 욥이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어떤 때는 공

29) Barbara G. Collins & Thomas M. Collins, *Crisis and Trauma: Developmental-Ecological Intervention* (Boston, MA: Lahaska Press, 2005), 108.

의로운 하나님으로 심판하시지만, 그 동일한 하나님은 또한 똑같은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해석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Hartley, 1988; 참조. Alden, 1993; Wilson, 2007). Clines(1989)는 이 증인이요 중보자가 '하나님' 이란 근거로서 42:7-8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욥은 이제까지 중재자요 증인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욥의 세 친구와 욥을 공격하고 억울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중재(arbitration)와 직면(confrontation)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욥은 9장 32-3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중재에 개입하시길 소원했었다. 하지만 욥에게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두려운 분이래 그저 소망에 불과하다고 체념했다. 그런 욥이 16장 19-20에 와서는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 되심과 중보를 간구하는 것을 볼 때 욥의 위기상황에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욥기 19장 25절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Redeemer)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말한다. 욥은 26-27절에서 "땅 위에 서실 대속자"와 연결하면 16장에서보다 더 담대히 그리고 더 선명하게 '증인' 이요 '중보자' 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반전이 일어난 것은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고 있는 청신호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땅 위에 나타나 서실 "증인"이요, "중보자"요 "대속자" (Redeemer: *Goel*)께서 (Long, 2012; Wilson, 2007; Walton, 2012; Alden, 1993) 욥과 그의 세 친구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순전함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셨다.³⁰⁾ 이로써 욥의 위기상담의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욥은 치유와 회복의 길

30) "대속자"(Redeemer: *goel*)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끔찍한 위기 (dire straits)에 처한 가족이나 그 가족의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역할 하는 가까운 친척을 말한다. (참조. 레 25:25-28; 신 19:6-12; 신 25:5-10), Gary A. Long, *Job in The Baker Illustrated Bible Commentary*, eds. Gary M. Burge & Andrew E. Hill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12), 486.

로 들어서게 되었다. Alden(1993: 207)은 주장하기를 “욥이나 모든 신자는 욥의 이전이나 이후나 하늘의 구속자 (Redeemer)가 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이 예수임을 알며, 마지막 날에 그가 일어나서 우리를 변호(defend)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행 20:28; 엡 1:7; 2:13; 골 1:20; 벧전 1:18-19; 계 1:5)”고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욥의 증인이요, 중보자요 대속자되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실 그가 “[위대한 상담자] (Wonderful Counselor)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사 9:6). 다시 말해서 욥이 갈망했던 그 하나님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위대한 상담자이며, 구속자이며, 메시아(Messiah)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Alden, 1993: 207; Jones, 2006: 93; Smith, 2007: 239-243).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6가지 특성들(characteristics)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the Spirit of the LORD)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상담]과 [능력]의 영이요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power)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머물]” 것이다 (사 11:2). Ian Jones (2006: 93-95)에 의하면 “이 메시아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안내 (guide)하고 방향을 제시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 . . 그는 하나님의 능력 (power)를 가지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 . .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그리고 인간의 아이로 오시며, 위로자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며,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위대한 중보자 (Mediator)” 이시다 (Smith, 2007: 271-272; Watts, 1985: 171-172).

신약에 성육신하신 중보자이자 메이사이신 예수는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 사역의 첫 메시지를 이사야 61:1-3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Smith, 2009; Watt, 1987)을 통한 치유와 회복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사

역의 중심 방향을 드러내셨다 (Green, 1997; Stein, 1992; Holand, 1989). 누가는 기록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했다. 그러므로 욥의 위기상담에서 성경에 근거한 상담은 성령을 의지한 회복과 치유의 사역이 되어야만 한다.³¹⁾ 욥의 상담자인 세 친구는 “지혜와 총명,” “상담[모략]과 능력,” “지식”의 영이 필요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와 내담자에 대한 올바른 인간 이해 그리고 고난과 위기상담에 대한 신학적이고 상담심리학적인 올바른 이해가 필요했다. 오늘날 크리스천 상담자들도 욥의 세 친구가 범한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결핍됐던 부분들을 더욱더 보강해야만 생명을 살리는 바른 상담을 하게 될 것이다.

4)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필요성

드디어 욥이 그토록 갈망하던 중보자가 38-42장에 나타나심으로 욥과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그 위대한 상담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과 욥과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 여러 질문을 던지셨다 (38:1-41:34; Carson, 2006, 150-53; 참조, Wilson, 2007). Carson (2006: 150-53)은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욥이 듣고 싶어했던 ‘악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욥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

31) 성경적인 상담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선 Ian Jones의 *The Counsel of Heaven on Earth*, 157-77을 참조하라. 정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세 가지 축은 “말씀의 선포 (preaching), 교육 (teaching), 치유 (healing)” (참고: 마 4:23; 9:35; 사 61:1-2)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누가복음 4:18-19은 치유사역의 핵심적인 선포였다고 이해한다.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44-45.

나눔을 비난 (condemn)한 것에 대해선 말씀하셨다 (38:2-3; 40:7-8; 42:3)고 했다. John Walton (2012: 399)은 “무지한 말로 생각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God’s counsel]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38:2, 42:2)에서 욥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독특하다고 보았다.³²⁾ Carson은 욥기서에서 배울 점은 “고난의 신비와 성도의 믿음에 대한 것” (Carson, 2006: 153) 이라고 이해한다. 욥기에서 배우는 ‘고난의 신비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내러티브는 위기상황에 처한 수많은 내담자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도 남는다 (McCartney, 2009; Richardson, 1997).³³⁾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약 5:11) 하였다.

욥은 “깨닫지도 헤아리지도 못한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42:3). 이는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질문들 (38:2-3, 40:7-8)에 충실히 반응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욥이 애매히 당한 재난으로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자, 하나님과 욥 사이의 고착된 관계가 그 ‘회개’를 통해서 풀리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 개입하셔서 욥의 세 친구에게 노하셨다 (42:7). 이로 인해 욥을 괴롭히던 문제들에 해결책을 주시었다 (42:8). 즉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 (burnt offering)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라

32) 여기서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my counsel)은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고난의 신비와 성도의 믿음과의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참조, Carson, 2006: 153).

33) 김영희는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 검증과 시련의 기간”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 시켜주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기회가 되게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희, 고난 속 고통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14, 233-235.

는 해결책이었다.³⁴⁾ 이로써 욕의 세 친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들과 욕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Wilson, 2007). 이는 위기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의 원리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즉 내담자인 욕의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가 욕의 위기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자, 내담자 “본인과의 관계적 위치” 문제 또한 풀리게 되었다. 그러자 내담자인 욕과 “타인과의 관계적 위치”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욕과의 관계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욕의 정체성과 자화상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크게 회복될 수 있었다.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욕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42:10). 욕에게는 재난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 (turning point)이 생긴 것이다.³⁵⁾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와 회복은 일차적으로 중심인물인 욕과 세 친구와 사이에서 일어났다. 그 뒤 욕의 곤경 속에서 배신했던 가족, 친척들과 이웃들이 찾아와 음식을 함께 먹으며 (fellowship), 욕을 위해 “슬퍼하고 위로하며 (comforting and consoling) 은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supporting with sharing)” (42:11). 욕의 회복은 동심원을 그리며 욕과 하나님, 욕과 세 친구, 그리고 욕과 가족 및 주변 사람들로 확장되어 나갔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어 다시 일곱 아들과 셋 딸을 낳았다.³⁶⁾ 욕의 소유물들도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욕은 그 뒤로 백사십 년 동안 더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고 장수의 복을

34) 여기서 “번제”은 “죄를 범한 자의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Wilson, 2007: 472)

35) Floyd (2008: 26)은 “위기는, 그러기에, 어렵긴 하지만, 한 개인이 고난 시간의 결과로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 (turning point)이다.”고 했다.

36) Alden (1993: 413)은, 재난으로 사망한 열 자녀는 이미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 욕은 자녀의 축복도 갑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42:10; 참조, 삼하 12:23; 살전 4:13; 고전 15:54).

누리다가 죽었다. 하나님은 약속이나 한 듯 모든 것에 갑절의 회복 축복을 주셨다. 이로써 욥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회복의 기회를 얻었으며 또한 백사십 년 동안 회복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욥과 아내에게 주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42:16-17).³⁷⁾ 이처럼 욥에게 일어난 위기상황은 욥의 온전한 믿음과 인내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지탱케 하시는 은혜와 중보자 적인 직면과 개입으로 다시금 원래 상태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위기상담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다. 이로써 오늘날 많은 위기에 봉착한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욥의 위기상담 사례는 큰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 되어 왔다. 위대한 상담자이신 하나님의 증재로 욥에 대한 위기상담은 효율적인 위기 목회상담의 표본으로서 현대의 목회상담자들에게도 큰 교훈을 안겨준다.

III. 닫는 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욥기서를 중심으로 성경적 관점의 위기상담을 이해하고 목회현장에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욥기서에는 여러 가지 위기상담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즉 테러, 자연재해, 가족의 사망, 건강의 악화, 엄청난 재산적 손실, 부부간의 갈등, 잘못된 상담의 폐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의인의 고난과 악의 문제, 고난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 등을 다루고 있기에 성경적인 위기목회상담에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는 욥기서를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면에서 연

37) Wilson (2007: 477)은 LXX 성경을 인용하여 욥이 재난 후 170년을 더 살아 전체 240년을 살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Alden (1993: 414)은 욥이 전체적으로 산 했수인지 아니면 또 다른 140년을 산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욥이 갑절을 삶을 산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구하였다. 첫째, 욕의 가족에게 닥친 재난에 대한 배경이해. 둘째,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고난에 대한 이해, 셋째, 욕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위기상담의 효율성의 문제. 넷째, 위기 목회상담학적인 이해와 적용이며, 이에는 1) 공감 능력의 중요성, 2) 정확한 위기 진단과 안내의 중요성—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위치와 욕 자신과의 관계적 위치, 그리고 욕과 세 친구 및 타인들과의 관계적 위치를 통해 욕의 위기상황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3) 증인이요 중재자요 대속자 되신 하나님, 4)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필요성 등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자는 본문 전체를 구조분석한 후 관련된 본문들을 주해하고, 성경적인 위기목회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 후 재해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놓여 있는 신비이기에 인간의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과 같이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 그리고 인류의 중보자요 대속자로서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통해 위대하신 상담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욕의 세 친구와 같이 상담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위기목회 상담자는 내담자를 더욱 낙심케하고 믿음조차 흔들리게 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담자는 고난의 의미와 올바른 신관과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살리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매한 고난 중에도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욕의 결말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 욕과 세 친구와 가족들의 관계와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위기 목회상담의 표준적인 모델을 제공해 주고 계신다. 이런 점에서 욕기서는 많은 사람에게 고난의 신비와 믿음의 승리에 대해 교훈하는 바가 많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영희 (2010). 고난 속 고통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고통을 통한 인생의 의미. *복음과 상담*, 14, 218-239.
- 김태두 (2006). *행복한 결혼 건축가* (미출판 칼럼집). 달라스, 텍사스: 뉴스코리아.
- 이관직 (2016). *개혁주의 목회상담학*. 개정 증보판. 서울:대서.
- 이관직 (2005). *성경인물과 심리분석*. 서울:생명의말씀사.
- 오성춘 (1997).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 정태기 (1997). *위기목회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한현희 (2020).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복음과 상담*, 28, 195-222.
- Alden, R. (1993). *Job*. NAC. Vol. 11.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 Anderson, F. (1976) *Job: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Carson, D. A. (2006). *How long, O LORD?: Reflections on suffering and evil*, (2nd ed.).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Clinebell, H. (1996).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Resources for the ministry of healing & growth*, Revised and Enlarge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 Clines, D. (1989). *Job 1-20*. WBC. Dallas, TX: Word Books.
- Collins, G. (2008). *뉴 크리스찬 카운슬링*. (한국기독교상담치료학회 역, *New Christian Counseling*, 3rd ed.). 서울: 두란노서원. (원전 2007 출판).
- Cosgrove, M. (1988). *Counseling for anger*. Vol. 16. Dallas, TX: Word Publishing.
- Everstine, D., & Everstine, L. (2006). *Strategic intervention for people in crisis, trauma, and disaster*. Rev. ed. New York, N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Floyd, S. (2008). *Crisis counseling: A guide for pastors and professionals*.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 Grudem, W. (2000). *Systemat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ical doctrine*.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 Hertley, J. (1988). *The book of Job*. NICO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Ivey, A., Ivey, M., & Zalaquett, C. (2018). 상담의 기술 (방기연, 김희수, 박현주, 이수진 역, *International interviewing and counseling*, 8th ed.). 서울: Cengage. (원전 2014 출판).
- Jones, I. (2006). *The counseling of heaven on earth: foundations for Biblical Christian counseling*.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 Long, G. (2012). *Job* in BIBC. Eds. Gary M. Burge and Andrew E. Hill. Grand Rapids, MI: Baker Books.
- Prout, T., & Wadkins, M. (2014). *Essential interviewing and counseling skills: An integrated approach to practice*. New York, NY: 2014.
- Smith, G. (2007). *Isaiah 1-39*. NAC. Vol. 15 A. Nashville, TN: B&H Publishing Group.
- Sommers-Flanagan, J., & Sommers-Flanagan, R. (2003). *Clinical interviewing*. (3rd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Viberg, Å. (2000). *Job* in NDB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Walton, J. (2012). *Job*.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 Zondervan.
- Watts, J. (1985). *Isaiah 1-33*. WBC. Vol 24. Waco, TX: Word Books.
- Wilson, G. (2007). *Job*. NIBC. Peabody, MI: Hendrickson Publishers.
- Wright, N. (1993). *Crisis counseling: What to do and say during the first 72 hours*. Ventura, CA: Regal Books.
- 메디칼 업저버 (2020.02.03.). 전 세계 과학자, 코로나 연구논문 전례 없이 무료 공유.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5>에서 2021년 3월 23일 인출.
- 서울대 의학 도서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논문 무료 이용 안내. https://medlib.snu.ac.kr/en/about_library/notice/view/1441964에서 2021년 3월 23일 인출.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vid-19-Articles. Retrieved February 10, 2021, from <https://www.apa.org/pubs/highlights/covid-19-articles>.

【 Abstract 】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Biblical Pastoral Crisis Counseling in light of the Book of Job

Kim, Paul Taido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pply a biblical perspective and understanding of the book of Job in a pastoral crisis counseling context. Job deals with diverse counseling issues such as disasters, death of family members, health issues, financial loss, marital conflict, poor counseling, PTSD, and struggling to understand God's sovereignty and the mystery of the suffering of the righteous. The researcher analyzed the entire book, then exegeted passages to apply them in a pastoral crisis counseling context. The researcher then applied the findings to four areas: (1) The Background of Job's family and their Experience of unexpected disasters. (2) The Understanding of God's sovereignty and of the Suffering of the righteous. (3) The Efficiency of the crisis counseling of Job's three friends and Elihu. (4)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pastoral crisis counseling. The study also explores the importance of empathy, accurate diagnoses of crises; of God as the Advocate and Redeemer; and of the Necessity of repentance, forgiveness, resilience, and healing. The researcher found that suffering is under God's sovereignty and that perseverance and faith like that of Job is needed in the midst of the mystery of suffering. The researcher also found that God the Advocate and Redeemer is good and faithful to provide resilience and healing and that Jesus Christ is the eternal Wonderful Counselor.

Key words: God's sovereignty, biblical pastoral crisis counseling, suffering of the righteous, God the Redeemer, PTSD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amily Ministry / Ph.D.